

치 사

가을바람에 자연은 저마다의 본성에 따라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하나 모자라다 할 것 없이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기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비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자연의 조화로움은 사회적으로는 공감(共感, sympathy)과 소통(communication)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공감과 소통의 문화 역시 일방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토대로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속에서 “제1회 조계종 학인 토론대회”는 학인스님들의 소중한 정진을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승가의 전통적인 학습법이 자 교육법인 논강(論講)을 오늘날 토론방식으로 계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연적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전제를 확인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종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회의 주제를 “토론의 힘! 동몽이상(同夢異想)”으로 삼았기에 의미 또한 더욱 크게 다고오고 있습니다. 동몽이상이란 같은 생각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꿈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을 만들고 다른 생각은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다는 같은 꿈을 가지고, 저마다의 수행정진에 맞는 다양한 방편으로 전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 토론문화가 학인스님들만이 아니라 승가 전체로

확대되고, 이러한 승가의 훌륭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유익한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인 토론대회’를 위해 진력하신 교육원장스님과 소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일선 기본교육기관의 학장스님과 교수스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동참하는 학인스님 모두에게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진이 한국불교와 사회의 밝은 미래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